



롯데 황재균(오른쪽)이 10일 목동 넥센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초 좌월솔로홈런을 치고 홈을 밟은 뒤 조성환(왼쪽)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목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 모범용병 유민 3연승 '롯데 희망가'

## 스타 플러스

6월 고비 넘기고 드디어 9승 고지니퍼트·양현종과 다승 공동선두 넥센진크스 탈출 4강싸움도 자신

역시 '모범 용병'이다. 롯데 외국인투수 쉐인 유민(34)이 한국무대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눈앞에 뒀다. 첫 다승왕 도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유민은 10일 목동 넥센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6안타 4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9승째(3패)를 올렸다. 지난달 27일 사직 NC전부터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며 쾌조의 페이스를 자랑했다. 이번만 아니다. 두산 더스틴 니퍼트, KIA 양현종과 함께 다승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한국무대



롯데 유민이 10일 목동 넥센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6이닝 2실점으로 시즌 9승째(3패)를 챙긴 유민은 니퍼트(두산), 양현종(KIA)과 함께 다승 부문 공동선두로 나섰다.

목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첫 해였던 지난해 13승을 일궈내며 롯데 마운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유민이다. 올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안정감으

로 팀을 떠받치고 있다. 또 다른 용병 크리스 옥스프링(7승)과 함께 벌써 16승을 합작했다.

이날의 호투는 롯데와 유민 모두에게 고무적이다. 일단 유민이 6월 초중반의 고비를 잘 이겨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민은 6월에 그 어느 때보다 고전했다. 4월 방어율 3.60, 5월 방어율 3.00으로 잘 버티다가 6월 방어율이 4.50까지 치솟았다. 30이닝을 던지는 동안 15점이나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7월 들어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14이닝 동안 4실점이 전부. 6월 때만 2승을 7월에는 이미 손에 넣었다. 무엇보다 '넥센 진크스'를 털어 버렸다. 롯데는 전날(9일) 경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1-3으로 석패했다. 5위 KIA에 0.5경기차, 6위 두산에 1경기차로 쫓겨 4강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유

민은 넥센에 약했다. 5월 26일 목동 넥센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4.1이닝 8안타 3볼넷 5실점으로 흔들렸다. 지난 시즌에도 넥센전 2연패를 그대로 떠안고 마감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한껏 기가 살아난 넥센 타선을 효율적으로 묶었다. 앞으로 넥센과 포스트시즌 진출을 놓고 다투야 하는 롯데로서는 그래서 더 기분 좋은 승리다.

경기 후 유민은 "다승 공동 선두지만 방심하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선발투수로서 팀 승리에 발판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팀이 이기는 데 공헌하고 싶다"며 "최근 직구의 구속이 올라와 도움이 된다. 예전에 안 좋았을 때는 직구와 체인 지업 위주로 던졌는데, 지금은 슬라이더도 제구가 잘 잡혀서 피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목동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goodgoer

## 이승엽 세계최연소 300홈런볼 10년 만에 삼성 품에

<주>에이스테크놀로지 구관영 회장 1억 2000만원에 산 불 구단에 기증

'국민타자' 이승엽(37)의 '세계 최연소 300호 홈런볼'이 10년 만에 삼성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동안 이 공을 보관해온 ㈜에이스테크놀로지 구관영 회장이 11일 대구 SK전에 앞서 구단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승엽은 2003년 6월 22일 대구 SK전에서

2-3으로 뒤진 8회 우월솔로홈런을 터뜨렸다. 개인통산 300번째 홈런으로, 만 26세10개월 4일의 나이에 대기록을 작성했다. 일본프로야구의 오 사다하루(왕정치·27세3개월11일)와 메이저리그의 알렉스 로드리게스(27세8개월6일)를 제치고 세계 최연소 300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2003년 이승엽의 홈런볼을 잡기 위해 야구장에 잠자리채가 등장하는 등 대한민국이 들

썩거렸다. 그런데 이 홈런볼을 주운 야구팬이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10만달러에 팔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구 회장이 해외 유출을 막고자 무려 1억2000만원을 주고 구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상구 사무총장과 삼성 구단은 300호 홈런볼에 대한 인증을 해줬고, 이승엽도 인증서에 사인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지난달 이승엽이 한국프로야구 개인통산 최다홈런 352호를 터트리자 "300호 홈런공을 구단이 보관하는 게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삼성 구단에 기증할 뜻을 전해왔

다. 기증식은 11일 SK전 클리닝타임에 열린다. 이 공은 경산볼파크 역사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은 당초 352호 홈런 신기록 사상이 잡혀 있던 날로, 테이북석을 제외한 내야지정석과 일반석을 50% 할인해주고, 선착순 5000명에게는 기념 사인볼을 나눠준다. 경기 전 대구구장 앞 광장에서 이승엽의 팬사인회가 열리고, 경기 후에는 추첨을 통해 관중 10명에게 이승엽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증정한다.

대구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keystonelee

## 8월 8색 UP & DOWN (10일) 잠실 구장

**NC** 이틀간 침묵한 방망이는 언제쯤 터지려나?

**LG** 여러 악재 넘고 난적 NC 상대로 워닝 시리즈 확정!

## 목동 구장

**롯데** 주루사로 자멸할 뻔한 위기, 넥센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났네!

**넥센** 자랑거리였던 내야 수비가 오늘날만큼은 걸림돌!

## 대전 구장

**두산** 9안타 6득점으로 승리했지만, "울스(선발 20이닝 3안타 4볼넷 2실점)를 어찌 할꼬..."

**한화** 7이닝 5안타 3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패전 떠안은 바티스타, "한화를 어찌 할꼬..."

## 대구 구장

**SK** 최정의 이틀 연속 홈런쇼! 이만수 감독 버전 "SK 하면 최정! 최정 하면 SK!"

**삼성** 배영수의 아홉수? 5월 25일 개인통산 109승 달성 후 1승이 이리도 어려워셔...

## 울스타 신본기의 '모범생 DNA'

'울스타 유격수'로 등극한 롯데 신본기(24·사진)는 알고 보니 천성 '모범생'이었다.



10일 목동 넥센전을 앞둔 롯데 덕아웃에선 신본기의 대학시절이 화제에 올랐다. 롯데 배재후 단장이 공개한 에피소드에 따르면, 신본기는 동아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한 태도로 교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학생이었다. 특히 1994년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영주 동아대 교수가 배 단장에게 유독 신본기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 교수는 배 단장에게 "운동부 학생들은 훈련과 경기 일정 때문에 수업에 자주 못 나오기 마련인데, 신본기처럼 열심히 출석해서 강의를 집중하는 선수는 처음 봤다"며 "그 성실성에 감동해서 내가 강의한 운동심리학과 운동발달학 모두 A+ 학점을 줬다"고 귀띔했다.

아닌 게 아니라 신본기는 모교에 대한 애정이 깊다. 5월에는 많지도 않은 연봉 3000만원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푼 때서 동아대 발전기금으로 쾌척했을 정도다. 신본기는 "전공은 경기지도학이었고, 부전공은 골프였다. 잘 모르는 게 많으니 출석이라도 열심히 해서 배우고 싶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교수님이 그냥 주신 학점 같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목동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goodgoer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2

뉴스채널 **mbn** **천기누설**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 **당뇨를 조절해주는 고추가있다?**

MBN방송 2013.05.30 방영

▶ 혈당이 최고치까지 나왔다는 이경순님 ▶ 식후 2시간 후 혈당 체크 - 정상수치

▶ 정상 혈당을 되찾아 줬는데 ▶ 식후 혈당 200mg/dl 이하... 정상 수치!

▶ 식사할 때 당조고추를 함께 먹습니다. ▶ 식후 혈당 200mg/dl 이하면 정상수치

**新모약산 당조고추의 희망 릴레이 (178번째 이야기)**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 창원에 사는 최정민 김현수 님이 저번 건강칼럼 결과 양이 20 이상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판정을 받으신 후 다시 판정하고, 모든 최정민 님은 완쾌되고 해서 주위에 유명한 한의원 치료로 귀환을 하셨는데 양이 떨어 지고 그래서 한의원 님에게 여쭙어 보았더니 계속 한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먹어도 효과를 못보고 있었는데 어날 TV에서 당조고추를 권하게 되었습니다. 복용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개월의 한약도 못먹었던 단치수가 10으로 떨어졌고, 수의지로 몸이 리드 했을 줄이지도 지금은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정민

전라북도 **완주군의 혈당잡는 고추!!**  
**세계최초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新모약산 당조고추**

세계최초로 국내육성 재배에 성공하여 강원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이 다년간 노력 끝에 새로운 종자(당조고추)를 개발하였다.

당조고추의 주 성분인 **AGI**란?  
▶ AGI는 십이지장을 비롯한 공장 상부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켜 **혈당치 상승을 억제**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농산물

**맛있는 新모약산 당조고추**

※ 과잉 섭취 시 저혈당 주의!! / 꼭 식사와 함께 드세요!!

농협: 352-0318-1836-13 (예금주: 한 강석) | 1599-6286

고추주문